

완주 귀농인 1150만원까지

군, 주택 매입·수리 등 안정 정착 지원사업 추진

새로운 '귀농귀촌 1번지'로 부상하고 있는 완주군이 귀농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대 1,150만원까지 지원한다.

15일 완주군에 따르면 우선 귀농자가 빈집을 포함한 주택을 매입, 신축 또는 임차(5년 이상)해 수리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 중 최고 50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1000㎡ 이상의 농지를 영농을 목적으로 임차하거나, 자경을 목적으로 매입시 최고 250만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귀농인이 자녀를 출산할 경우, 둘째 아이부터 1인당 12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3회에 걸쳐 매달 40만원씩 지급된다.

아울러 자녀가 대학교 입학시 입학금 및 등록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이사가 가구당 최대 50만원까지, 교육 훈련비로 최고 30만원까지 각각 지원



완주군이 귀농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대 1,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된다. 이를 전체 포함할 경우, 귀농인은 최대 1,000~1,15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완주군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

귀촌인은 주택 매입·수리·신축비, 농지 임차비·매입비를 제외한 출산장려금 이차비, 학자금 등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다만 완주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이 회수된다.

완주군은 이외에도 2016년도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을 비롯해 귀농인의 집 5개소 조성 등 24억원의 예산을 투입 귀농귀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주로 태권도 '유학 바람'

군 태권도 육성 매료 2년 간 11명 전학 와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대회 개최 무주군에 태권도 유학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들어 태권도 때문에 무주로 전학을 오는 초·중·고 태권도 선수들이 늘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14년부터 2년 간 군산과 전주, 부안, 대진 경기도 인양 등지에서 전학을 온 학생들은 모두 11명(고등학생 6명, 중학생 4명, 초등학생 1명)이다.

이들은 모두 무주군태권도협회(회장 김민재)를 중심으로 군에서 주력하고 있는 태권도 선수부 지원과 학교 태권도 육성에 매료돼 무주행을 결정하게 된 것.

실제로 군에서는 무주초와 중앙초, 안성초, 설천초, 무주중, 무주고 등 6개 학교에서 선수부(현재 48명/2006년 창단)를 운영하며 대회출전과 장비, 훈련, 지도자, 그리고 우수선수 인센티브(해외문화체험)등을 지원(연간 2억여 원 투입)하고 있다.

학생 태권도시범단(현재 31명/2007년 창단)을 육성해 국내·외에 태권도와 태권도원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군은 해외 활동이 잦은 시범단원들을 위한 외국어 교육과 시범·홍보(국내외) 활동에 연간 1억 9천여만 원

을 지원한다.

이뿐만 아니라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22개 교에 지도자를 파견, 별도의 태권도 수업시간을 편성해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으며 도복과 띠도 무료 지원하고 있다.

2014년도에 전주에서 전학을 온 무주고 3학년 백재용 학생은 "태권도 선수의 꿈을 키우고 있는 저로서는 태권도 성지 무주, 선수들을 위한 배려와 지원이 남다른 무주에서 운동을 하는 것만큼 절실하고 좋은 선택은 없었다"며 "좋은 환경, 훌륭한 선생님들 밑에서 열심히 운동해서 태권도의 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태권도 성지 무주를 알리는 훌륭한 선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태권도 인재 육성이 곧 태권도 성지의 경쟁력이라는 생각으로 꿈나무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으로, 태권도 성지 군의 태권도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지역 인구 유입에도 새로운 해법이 될 전망이다.

군 문화관광과 태권도 담당 박선옥은 "선수부나 시범단 활동 등 무주군의 학교 태권도 지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해주시는 타 지역 학교나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다"며 "태권도원이 있는 무주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훈련하고 싶은 학생들이 더 많아 질 수 있도록 꿈나무들을 키워 나가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국립블리스

진안군 추경 162억 증액 편성

진안군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본예산 3,168억원보다 162억원(5.13%) 늘어난 3,331억원으로 확정됐다.

진안군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추경예산은 일반회계가 153억원 증가한 2,924억원, 특별회계가 9억원 증가한 407억원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연초방문 건의사항에 따른 농번기 이전 긴급한 민원해결 및 군정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비조정, 재해예방 등 민생현안사업에 중점을 뒀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000만원, 보통교부세 114억원, 국도비보조금 38억원이 증액됐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 53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32억원, 국도 및 지역개발분야 180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14억원, 환경보호분야 11억원, 보건분야 8억원 등을 편성했다.

/진안=우태민기자

장수, CYS-Net 학교지원단 회의

장수군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5일 오후 2시 장수한누리전담 다목적실에서 관내 초·중·고 교장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학교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수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2016년도 상반기 사업과 하반기 주요 사업보고에 이어 학교 내 위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맞춤형서비스와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는 특별청소년 지원사업과 관련해 학교 차원의 협조방안을 모색했다.

/장수=고판호기자

무주경찰, 치매 노인 조기 발견 시설 방문 지원 사전등록 실시

무주경찰서(서장 한도연)는 사회가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치매 어르신들의 실종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15일 요양원 등 보호시설에 방문하여 지원 사전등록을 실시했다.

사전등록제는 치매 노인의 사진과 지문 신체특징, 기타 기본 정보 등을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관리하는 제도이며, 사전등록이 된 자는 모든 경찰관서에서 신원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요양보호시설 관계자는 "평소 어르신들이 가족들과 외출 중 가끔씩 다른 곳으로 사라져 찾지 못했거나 가슴을 졸이던 적이 있었는데 경찰관이 직접 방문하여 사진과 지문을 등록해주는 등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 화산-운주간 도로 시설개량 추진”

군-익산국토청, 현안사업 협업 강화 합의

완주군이 화산운주간(국도 17호선) 도로 시설 개량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민전을 기한다. 군에 따르면 15일 박성일 완주군수와 하대성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관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완주군은 현안사업인 화산운주간(국도17호선) 도로시설개량사업의 조속한 추진 및 환경강화 하천환경정비사업 등 상호 협업을 강화

하기로 합의했다.

화산운주간(국도17호, 말골재)은 현재 시설개량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익산청)의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2016~2020)으로 선정하여 기획재정부와 사업비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화산-운주간(국도17호)은 선형이 불량하고 급경사로 인하여 호남의 금강산인 대둔산 도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 차량의 통행 불편과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대중교통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으로, 이번 사업이 확정되면 올해 설계 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의견을 나누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자랑하는 만경강 하천환경을 정비하는 만경강 하천환경정비사업 3개 지구(화진, 신타, 어우)는 사업 추진 시 유휴공간을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전통문화공원 및 생태문화공원 등 친수 시설로 조성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군-美 워싱턴카운티, 우호교류 협약 체결

친환경농업·건강·치유 분야 등 상호 발전 기대

진안군이 해외도시 교류 확대를 위해 '미국 메릴랜드주 워싱턴카운티'와 15일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항로 진안군수를 비롯한 친환경농업 분야 군 관계자와 그렉 머레이 워싱턴카운티 군수, 존 바트 의원, 새라 스프레서 부군수 등이 참석했다. 워싱턴카운티는 농업의 현 수준을

미래에도 잘 유지하기 위한 농업지역 보전관리에 적극적인 제도를 시행 중에 있어 진안군의 청정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건강과 치유 서비스 추진에 공동적인 관심이 있어 우호교류를 통한 상호 발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도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친환경농업, 문화·관광, 행정,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적인 교류 협력 사업을 펼치기로 논의했다.

이항로 군수는 "친환경농업과 건강·힐링의 도시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양 지역이 우호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앞으로 다양한 정책을 공유할 계획이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지금당

효자임옥산정려각

장수군, 향토문화유산 7건 지정

장수군 양성지별묘 등 장수군 비지정 문화재 7건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군은 지난 9일 향토문화유산위원회를 개최, 관내 비지정 문화재 7건을 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심의 통과한 후 14일 지정고시했다.

올해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은 양성지별묘, 열녀남평문씨정려각, 열녀숙인진주소씨정려각, 유계영당, 지금당, 효자박귀천정려각, 효자임옥산정려각으로 총·효사상 배향인물의 역사성, 근대 학당의

대표성 등이 인정받았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총 14개소를 장수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했으며 앞으로 장수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등을 통해 보존 관리하게 된다.

최용득 군수는 "이번 지정을 통해 향토문화재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며 "향후 지속적 보존을 통해 지정문화재 및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귀촌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 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략사업과
063-430-2951